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

2017년 11월 20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9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1. 17.(금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이중엽 서기관(044-203-4043) 정민규 사무관(044-203-4041)

산업부, 환율 하락에 대비,
중소·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즉시 확대 지원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**는 최근 **환율 하락***에 따른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**의 **애로를 해소**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**환변동 보험 지원**을 **한시적으로 확대**한다.

* 원/달러(한은) : (10월) 1129.48 → (11.1-15) 1115.35 → (11.16) 1101.40 (장중 1,099.60 기록)

○ 우선,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경우** 현행 0.02~0.03%의 일반형 환변동 **보험료를 50% 할인**하여 **이용 부담**을 **대폭 줄일 계획**이다.

* 원/달러 선물환 할인율 : 현행 20% → 향후 50%(보험료율 0.02~0.03% → 0.01~0.02%)
: (예시) 100만불 가입시 보험료 30만원 중 현행 6만원 인하 → 향후 15만원 인하(환율 1,000원 가정)

○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**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**도 **3배 확대**(현행 1백만 달러 → 향후 3백만 달러)한다.

○ 또한, 11~12월중 **지역순회 설명회 개최** 등을 통해 수출 중소·중견 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한다.

□ 다만, 동 조치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12월 **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, 12.12~13일) 회의 결과**에 따라 **12.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**하며, 동 **회의 결과** 및 **시장 상황**에 따라 **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**하기로 했다.

□ **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**은 “최근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**환율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**하고 있다.“라고 말했다.

○ 이에 따라 **품질** 등 **가격 외적 요인**이 **중요**한 **업종**(**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**), **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**(**가전·컴퓨터·무선통신기기 등**), **장기로 계약**하는 **업종**(**선박** 등) 등 **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환율 영향**은 **제한적**이나,

○ 석유제품·석유화학·일반기계 등 **일부 업종**의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**들은 **환율 하락에 영향**을 받는 만큼, 동 기업의 **피해를 최소화** 할 수 있도록, **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**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중엽 서기관(☎ 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